

2024년 제6회 세종환경교육한마당

나는 어린이가 환경 시인

동시 백일장

수상작



| 주최 | 세종특별자치시
|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



변신

고운초등학교 2학년 송시안

뽕! 커피찌꺼기, 커피쟁반으로 변신하고요

뽕! 깨진 유리그릇, 예쁜 유리잔으로 변신하지요

뽕! 다 쓴 공책, 새 일기장으로 변신하고요

뽕! 작아진 내 헌 옷 아기옷으로 변신하지요



버려지는 헌 물건이 완전히 새 물건으로 변하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에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이 환경 시인 대회 수상작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는 소방용품

음곡초등학교 4학년 김서운

불로부터 소방관을 지키던 방화복
이제는 가방이 되어서 지구를 지켰네
위험한 불을 꺼주던 고마운 소방호스
이제는 필통이 되어서 지구를 지켰네
작은 불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던 소화기
이제는 냄비 받침이 되어서 냄비를 지켰네



업사이클링 영상을 보니
정말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사용해요

능봉초등학교 1학년 이규빈

다 쓴 병뚜껑으로
치약짜개를 만들어
내가 다시 사용해요

작아진 티셔츠를
필통으로 만들어
내가 다시 사용해요

필요 없어보여도
무엇으로 만들어
내가 다시 사용해요



나쁜 쓰레기들이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새사용으로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응암초등학교 4학년 원수빈

종이가 작품이 되고
깨진 유리가 목걸이가 된다고?
심지어 소방호스는 지갑과 가방이 된다고?
우와! 너무 신기하다!!
나도 만들어보아야지!
만약 이 시를 보게 된다면
너도 실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를 적으니까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

새뜸초등학교 1학년 이국희

다 쓰면 버리는 줄 알았던 병뚜껑이
지구를 지켜주는 멋진 옷이 되었어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재활용을 하는 어른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재활용하는 어른들과 함께
학생들도 재활용된 학급트셔츠와 가방을 예면
지구가 더 건강해 지겠지!



환경 오염이 심각해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페트병의 꿈

해밀초등학교 3학년 배지은

버려진 컵은 예쁜 꽃을 담는 꽃병이 되고
버려진 전단지는 멋진 작품이 되었는데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꽃병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흔하잖아.
그래 결심했어! 나는 밝은 조명이 될거야.

꼭 조명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 줄거야.
그리고 사람들 마음 속 뾰족한 가시들을
조금씩 조금씩 없애 줄거야.



우리집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페트병을 많이 버리고 있어서
버려지는 페트병의 입장에서
재활용을 꿈꾸는 페트병의 꿈에
대한 동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새활용

응암초등학교 4학년 정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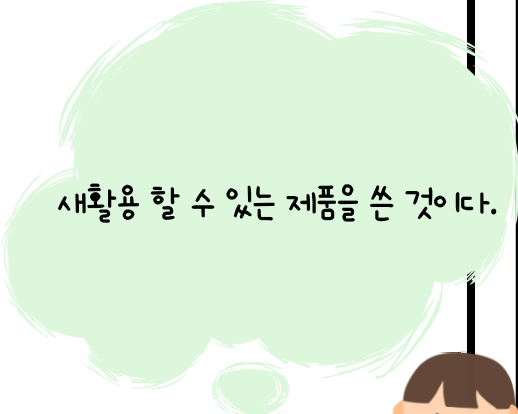
쓰레기를 똑딱똑딱

페트병을 예쁜 꽃병으로 똑딱똑딱

비닐을 가방과 지갑으로 똑딱똑딱

소방호스를 필통으로 똑딱똑딱

이러면 지구가 기뻐야





페트병 삼형제

세종도원초등학교 4학년 장주진

페트병 삼형제 엄마가 물었어요
너희는 꿈이 뭐니?

첫째 페트병이 말했어요
저는 식물을 보호하고 싶어요

둘째 페트병이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꾸여주고 싶어요

셋째 페트병이 말했어요
저는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싶어요

페트병 삼형제 엄마는 말했어요
꼭 커서 너희의 "새"로운 꿈을 이루렴

첫째 페트병은
식물을 보호하는 화분이 되었어요

둘째 페트병은
사람들을 꾸미는 옷이 되었어요

셋째 페트병은
집안 살림을 돕는 가구가 되었어요

삼형제가 말했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 준 "새"활용 고마워~!

최근에 페트병을 화분으로 만드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신기해서 찾아보니
바로 '업사이클링'이었습니다.





변신해라. 압~!!

여울초등학교 3학년 임서진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아
새롭게 새롭게 변신해라 압!
튼튼한 핸드폰 케이스가 되고,

버려지는 유리병들아
멋지게 멋지게 변신해라 압!
알록달록 빛이 나는 전등이 되고,

버려지는 타이어들아
빠르게 빠르게 변신해라 압!
내가 신고 달리는 운동화가 되었네.

버려지는 쓰레기들아
쓸모있게 변신해서
아픈 지구를 괴롭히지 말아줘!



버려지는 휴지심으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 거코 도마뱀의 집을 만들다가
새활용에 대해 관심이 있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지구

다정초등학교 1학년 송지호

지구는 아프다
우리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 해야한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야
지구가 아프지 않고
우리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날씨는 중간이 없어

음릉초등학교 4학년 전유빈

날씨는 중간이 없네

9월 중후반까지 덥네

9월말이 되니 춥네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거지?

봄, 가을이 두 달 줄어들고 있네

여름 겨울은 두 달씩 늘어나네



지구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마치 중간 온도가
사라져서...





1도가 오르면

음곡초등학교 4학년 연준서

1도가 오르면 나무와 산바다가 사라지고

1도가 오르면 빙하가 녹고

1도가 오르면 동물들이 힘들어

1도를 줄이면 빙하가 더 생기고

1도를 줄이면 더 시원해져

1도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어느날 아침 일어나서 밖을 보니
이제 가을인데 여름 날씨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때문에
이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